

실무자 워크숍

Working-level Workshop



동북아시아를 결집하는 교류의 디딤돌

NEAR 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회원단체 실무자 워크숍이 2012년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3일간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현대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는 중국 3개 단체, 일본 10개 단체, 대한민국 9개 단체, 몽골 11개 단체 등 총 4개국 33개 단체 80여 명이 참석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간 결속을 강화하고 교류의 방향성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일본 환동해(일본해)경제연구소(ERINA)의 스즈키 신사쿠 연구원을 초청, 특강을 통해 일본 지자체 외교의 모범교류사례를 살펴보고, 동북아시아의 발전을 위한 지방 간 교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 및 NEAR의 역할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방안들을 외부의 시각에서 재조명하였다. NEAR회원단체의 교류 사례 발표 및 현안에 대한 토론 등 이어진 회의 일정을 마친 참석자들은 회원단체탐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라남도로 이동,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관람하였다.



1. 특별강연

환동해(일본해) 경제연구소(ERINA)의 스즈키 신사쿠 특별연구원은 36년간 니가타 시청 및 국제정책·경제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 강화 및 집중적인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통한 자매도시와의 정기항로 및 항공 개설, 시민 국제화, 재외공관 유치 등 니가타시의 국제교류전략과 성과를 설명하였다. 또한 향후 동북아 자치단체들 간 교류의 심화발전을 위한 국제적 인재 육성과 국제물류 인프라 정비, 기업정보의 네트워크화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동북아지역의 국제협력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NEAR가 회원들의 의견을 기본이념의 방향으로 결집시켜 보다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한다면 정치·경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회의결과를 중앙 정부에 설명할 수 있는 지원체제 구축, 외부에 개방된 회의 개최, 자문조직의 설치, 동북아의 중요문제를 분과위원회의 주제로 선정함으로써 지방 간 논의 심화, 민간단체, 연구기관, 기업 등과의 공동사업을 통한 NEAR 사업활동의 대외홍보 강화 등 외부전문가의 시각으로 NEAR의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제안을 하였다.



환동해(일본해) 경제연구소(ERINA)의 스즈키 신사쿠 특별연구원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간 교류'에 대하여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 수범사례

대한민국 대구광역시시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하여 추진해 온 다양한 인적교류 및 인턴십 사업을, 전라남도도는 미국 자매도시와 '영어체험캠프' 운영을 통한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영어교육 개선, 일본 효고현은 국제회의의 개최를 통한 국제교류 확대, 몽골 옅스아이막은 축제개최를 통한 변경지역 민간교류 강화 사례 등을 발표하였다.



일본 효고현의 모리야스 히데카즈 국제교류과 과장이 국제회의의 개최를 통한 국제교류 확대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3. 청년 해외인턴 프로그램

사무국에서 동북아 지방간 구체적 교류사업으로서 추진 준비 중인 NEAR청년 해외인턴교류 프로그램 'PioNEAR(Professional Internship Program of NEAR: NEAR)' 을 소개 및 토의로 실무위원회 회의를 마무리 하였다.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하는 대구광역시 윤소영 주무관



'PioNEAR' NEAR 청년인턴교류프로그램에 대해 부연설명하는 김종학 NEAR사무처장

4. 전라남도 ‘2012 여수세계박람회’ 탐방

대한민국 여수세계박람회장 참관을 위한 워크숍 참가자들은 한국관에서 한국인의 바다정신과 해양역량을 느낄 수 있는 영상과 관람객이 참가하는 전통공연이 접목된 환상적인 무대를 관람했다. 또한 주제관에서는 듀공이라는 희귀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퍼포먼스와 다큐멘터리영상 등을 관람하고 해양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느끼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국제관에서 일행은 각자 관심 있는 국가의 전시관을 자유롭게 관람하는 것으로 여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전경



“회원탐방” 프로그램 일환으로 전라남도의 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한 한국 및 일본 대표단

